

국내 유일의 공룡학자가 쓴 공룡백과사전

《공룡대탐험》 펴낸 이웅남씨

〈쥬라기 공원〉이 상영된 이후 많은 종수의 공룡책이 나왔지만, 대부분 외국책을 번역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웅남씨가 펴낸 《공룡대탐험》은 전문가가 쓴 본격적인 연구서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하지만 이 책은 하마터면 출간되지 못할 뻔했다. 제작비가 많이 들고 내용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출판사가 출간을 거절한 탓이다.

지금으로부터 2억 4천 5백만년 전, 지구상에 처음으로 공룡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후 약 6천만년 전까지, 1억 8천만년 동안이나 지구를 지배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그들은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고비사막이나 중생대의 지층에서 화석으로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왜 사라져야만 했던 것일까.

공룡에 대한 편견 바로잡아

“아마도 운석충돌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신생대와 중생대의 지층이 겹쳐지는 지점에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운석충돌은 지진을 일으켜 화산분출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화산에서 다량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생태계를 붕괴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설일 뿐이죠.”

이웅남씨(40,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초빙연구원)는 1억 8천만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지층 한층 한층을 살살이 살펴 마침내 《공룡대탐험》(창작과비평사)이라는 ‘탐사기’를 펴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중생대를 호령했던 공룡이라는 거대한 실체와 만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지금껏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룡에 대한 환상과 편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공룡은 땅 위에만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익룡이나 물 속의 어룡은 공룡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룡은 그 크기 또한 닭만한 것에서 축구장만한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공룡이 냉혈동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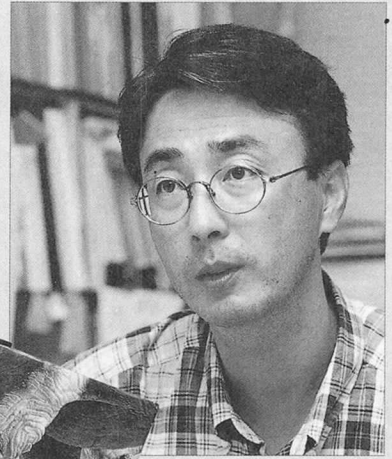
기 때문에 굶겨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죠. 공룡의 화석은 그린란드와 남극대륙에서도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공룡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이 책은 한마디로 공룡백과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분기분류학을 토대로 공룡의 출현에서 멸종까지 340여장의 컬러도면과 함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공룡학자들의 발굴에 얽힌 일화와 지은이의 몽골 고비사막 탐사여행기록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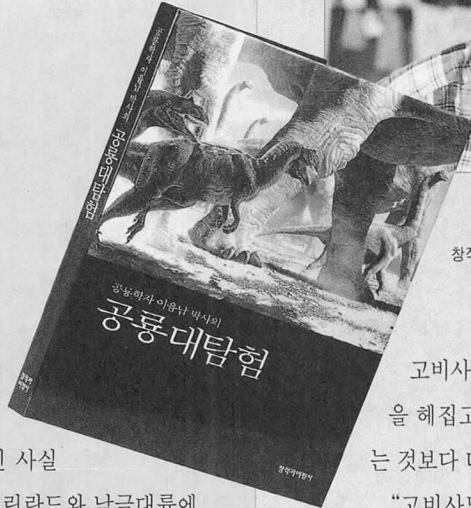
“영화 〈쥬라기 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후, 공룡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공룡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한 책은 거의 없는 형편이죠.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도 대부분 일본 책을 번역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 책들이 과학적 사실에 충실하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공룡 역시 과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시장성 문제로 출간되지 못할 뻔해

그는 직업상 현장 탐사를 자주 가게 된다. 그런데 그 현장이라는 곳이 대부분 오지다. 그동안 발굴과 탐사를 하면서 몇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전갈에게 물려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고 산사태에 묻힐 뻔한 위기도 여러번 넘겼다. 사막에서 조난을 당해 7시간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공룡의 흔적을 좇아



이웅남씨



창작과비평사/B5변형/224면/28,000원

고비사막의 사나운 모래폭풍 속을 헤집고 다니는 시간이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아늑하게 느껴진다.

“고비사막은 공룡학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도처에 공룡뼈가 널려 있죠. 게다가 보존상태도 거의 완벽합니다. 고비사막은 공룡화석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이미 1년 전에 이 책의 원고는 완성돼 있었다. 하지만 출간할 만한 여력을 가진 출판사를 만났기가 어려웠다. 그는 몇 군데 출판사들로부터 출간을 거절당했다. 그림이 많아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고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해양연구소 장순근 박사님이 출판사를 소개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책의 원고도 화석이 됐겠죠.”

이 책은 국내 유일의 공룡학자라는 타이틀을 지닌 그가 처음 펴낸 책이다. 그만큼 부담감도 컸을 터. 하지만 그는 오히려 담담하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방어진’을 치른 것 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걸었던 길을 따라올 사람들을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해야죠.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공룡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 최갑수 기자